

# ‘평상심시도’ ‘즉심즉불’에서 ‘안심입명’을 찾다

## <25> 선사(禪師)문화의 기사들(6)

하택신회(荷澤禪會) 선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남종선(南宗禪)은 점차 중국 천하에 명성을 떨치게 됐다. 특히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에 신회 선사의 업적을 인정 받아 속종의 귀의를 받으면서 제도(帝都)는 하택종(荷澤宗) 천하가 됐다.

그러나 반란의 영향은 상당히 심각했다. 8년간 지속된 반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대당제국을 한순간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반란 전에는 890만 호(戶)에 달했던 인구가 반란 진압 후에는 293만 호로 자그마치 70%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붕괴하게 했고, 그에 따라 주로 사대부 기사들의 재시(財施)에 의존하던 전체적인 불교 역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반란 이후에도 계속된 민생의 피폐와 정치적 혼란은 뜻있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상을 희구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혜능(慧能) 선사의 또

당시 암울한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문인 사대부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됐다.

혜능-회양 선사의 법사(法嗣)에 대해 근대 이후로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다. 혜능 선사의 입적 시에 거명된 십대제자 가운데 회양 선사의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원사(遠師)’를 주장하는가 하면, 혜능 선사의 입적 시에는 이미 그 문하를 떠났기 때문에 십대제자의 명칭에서 누락됐다는 추론 등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회양 선사 문화에 귀의한 장정보(張正甫; 752-834)와 권덕여(權德輿) 기사들이 찬술한 비명(碑銘)과 탐명(塔銘)에서는 회양 선사의 법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장정보 기사는 자가 천방(踐方)으로 남양(南陽) 출신이다. 정원(貞元) 2년 진사에 급제해 동주자사(同



은 도숙(道俗)을 교화해 이른바 ‘홍주종(洪州宗)’의 선법을 널리 펼쳤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대부 관료 기사들의 귀의를 받았다. 또한 선사에게 귀의한 사대부 기사들의 여러 작용은 홍주종을 더욱 널리 알려지게 했다.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국불교가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조 선사에게 귀의한 거사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는 앞에서 언급한 권덕여(759-818) 거사이다. 거사는 자가 재지(裁之)이고, 천수(天水) 랴양(略陽; 현 甘肅省 秦安) 출신이다. <구당서> 권148에 기재된 거사의 전기에는 벼슬 윤이 좋아 예부시랑(禮部侍郎), 예부상서(禮部尚書) 등의 고위관직을 30여 년 역임했다. 특히 문장이 뛰어나 명기(銘紀)의 찬술에는 ‘종장(宗匠)’의 칭호를 들었다고 전한다. 거사가 찬술한 비명에는 스스로 ‘일찍이 대적(마조) 선사에게서 도(道)를 들었다’ ‘일찍이 대사의 율타리에서 놀았다’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니, 거칠게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다’ ‘이미 청량하게 해졌다’라고 적어 마조 선사에게 깨우침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권덕여 거사가 마조 선사를 만난 인연은 바로 마조 선사가 머물던 강서의 관찰사를 역임했던 이겸(李兼) 거사 소개로 비롯된 것이다. 이겸 거사 역시 마조 선사에게 ‘깊이 마음을 이끌려 가르침을 따른 [傾向順教]’(<송고승전> 권10 도일 선사전) 재가제자였다. 거사는 특히 강서관찰사와 어사대부(御史大夫)를 겸직했기 때문에 마조 선사와의 인연은 더욱 깊었다. <도일선사탑명>에 따르면, 거사는 마조 선사를 모시는데 극도로 예의를 다 했다. 불법을 보호하는데 정성을 바쳤고, 마조 선사의 최후의 말씀을 계승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마조 선사에 대한 거사의 태도가 충분히 짐작된다.

<탑명>과 <송고승전>의 도일 선사 전기, <구당서> 등의 자료로부터 마조 선사에게 귀의한 거사들은 수십 명에 달한다. 그들은 대부분 중앙의 고위관료를 역임한 사대부 기사들이며, 상당수가 문인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거사들이 무엇 때문에 제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의 선사에게 매료됐는가? 원인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사의 난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 파탄, 그리고 점차 기울어 가는 당조(唐朝)의 운명 앞에서 지식인들은 마조 선사가 제공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선리(禪理)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도리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대부의 심리는 또 다시 중국 거사의 성격을 일변시킨다. 단순히 선사에게 귀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도를 논하고 즐기는 형태로 거사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거사의 전형이 바로 방 거사(龐居士)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회양 선사 거사들 귀의·활동으로 ‘대혜 선사’ 시호 받아 장정보·권덕여·영고권·귀등·이겸 거사 등 불교에 귀의

다른 제자들이 남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선(祖師禪)을 활발하게 펼쳤으며, 이는 당시 문인 사대부 계층의 호응을 받아 서서히 중국 천하에 퍼지게 됐다.

신회 선사 이외에 혜능 선사의 유명한 제자들은 바로 남악회양(南嶽懷讓)과 청원행사(淸原行思) 두 선사들이었다. 회양 선사는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법을 전하고, 도일 선사 문화에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 아호대의(鰲湖大義) 등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배출했다. 행사 선사는 석두희천(石頭希遷)에게 법을 전하고, 회천 선사 문화에서 단하천연(丹徒天然), 약산유엄(藥山惟嚴), 천황도오(天皇道悟) 등 풍격이 선명한 선사들을 대거 출현시켰다. 이른바 남종선 남악계(南岳系)와 청원계(淸原系)의 양대 선맥으로, 이 두 계통의 선법이 남방으로부터 크게 맹위를 떨치게 됐다. 따라서 <송고승전(宋高僧傳)> 회천 선사의 전기에는 류가(劉訥) 거사의 비(碑)를 인용해 ‘강서(江西)의 법주(法主)는 대적(大寂; 마조도일)이요, 호남(湖南)의 법주는 석두 선사로서 서로 왕래함이 끊어지지 않으니, 두 선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러한 마조와 석두 두 선사의 선포(禪風)은

조(刺史), 소주(蘇州)자사, 호남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구당서(舊唐書)> 권162에 실린 그의 전기에는 마조 선사의 제자 유관(惟寬)과 회화(懷暉)의 정으로 회양 선사의 비명과 탐명을 찬술했다고 전한다. 비명은 달마(達摩)의 전심(傳心) 이후 육조(六祖)에 이르면 후 남북 양종으로 나뉜 상황을 언급하고, 회양과 혜능 선사의 법을 전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명은 원화(元和) 10년(815) 찬술했다. 이때는 장정보 거사가 호남관찰사를 역임하던 시기이다.

이에 앞서 권덕여 거사는 홍주선(洪州禪)을 드러내고 마조도일 선사를 찬탄하는 탐명(<전당문(全唐文)> 권501 게재)을 찬술했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형악(衡岳)에 회양 선사가 있다. 조계 육조 대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진심(眞心) 설법에 뛰어나 그를 돈문(頓門)이라 했다’며 혜능-회양의 사법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거사들의 비명과 탐명을 근거로 규봉종밀(圭峯宗密) 선사는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권3하에서 드디어 ‘남악(南岳) 관음대(觀音臺) 화상(和尚) 선사는 육조의 제자이다. 본래 법을 퍼지 않고 산에 머물면서 수도(修道)했다’라고 하여 혜능-회양의 사법관계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종밀 선사의 문구를 분석하면, 이미 당시에 회양 선

사의 사법관계가 문제됐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종밀 선사는 회양 선사가 본래 홀로 수행하기를 좋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혜능의 십대제자에 들지 못했음을 변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양 선사의 사법문제는 선종사의 연구에 밑거름이 되겠지만, <송고승전>의 회양 선사 전기에는 선사에게 귀의한 사대부 기사로서 형양(衡陽)태수 영고권(令孤權)과 상시(常侍) 귀등(歸登) 등의 이름이 보인다. 영고권 거사는 형양태수의 재임기간에 수시로 선사를 찾아 법을 물었고 재물을 보시해 기제(忌齋)를 개회했다. 이로부터 매년 8월에는 관음기제(觀音忌齋)를 개회했다. 귀등 거사는 회양 선사의 비문을 찬술했지만,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이로

부터 회양 선사에게도 대다수 사대부 기사들의 귀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후에 이러한 거사들의 활동으로 ‘대혜(大慧) 선사’ 시호를 받았다.

실제로 회양 선사가 유명해진 까닭은 불세출의 제자인 마조도일 선사의 행화(行化) 때문이다. 마조 선사는 본래 당 화상(唐和尚; 處寂)에게 출가해 신라의 김 화상(金和尚; 無相)을 사사했다가 개원(開元) 22년(732) 호남의 형산에 머물면서 회양 선사로부터 유명한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겠는가[磨磚成鏡]’는 질책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천보(天寶) 원년(742)에 형산을 떠나 복건성 건양(建陽) 등지에 머물다가 대력(大曆) 4년(769), 강서(江西) 진현(進賢) 개원사(開元寺)에 주석하면서, 약 30여 년 동안 수많은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면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무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급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꾸 주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행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밀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절망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절망하는 사람은 더 절망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확재의 신간**

정당 저음  
신권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찾아오시는길: 4호선 김포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정자는 버스-해미리조트 3거리-중앙하이패스-관음정사

**기도 상담**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잡이 역할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